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46호 현대불교
2009년 8월 26일(음 7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내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마음의 촛불을 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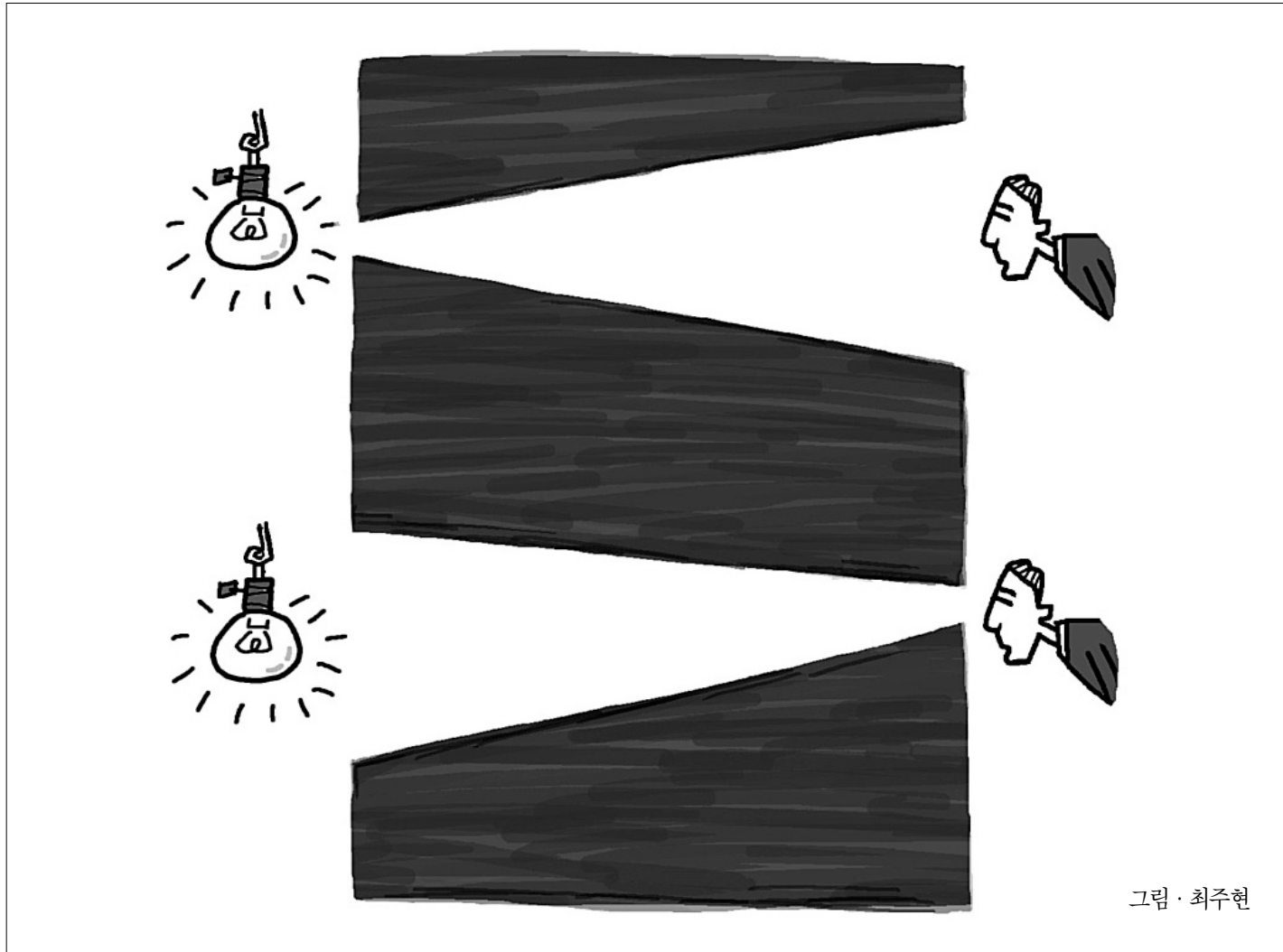
안되면 조상 탓?

☞ 우리가 속된 말로 흔히 잘못면 내 탓 안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상님들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닌지요?

☞ 내가 지금 물 한 그릇을 먹는 데도 우주 천체가 먹고도 이 물 한 그릇이 되려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다 한다면 촛발을 켜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위패를 써 놓고 그러고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 놓고서 가만히 그 은공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인등이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마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 놓고 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 쥐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는 묵은 빛을 갚는 일이고, 또 아래로 햇빛을 주려면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는 모시고 아래로는 이 육신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을 제도하면서, 바깥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가지만 육의 부모나 법의 부모나, 부처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틀이 아닌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둘로 보지 마세요, 그것도 왜 구차하게 삼니까? 왜 그렇게 자기가 열기 싫기 해 놓고 자기가 고달프게 삼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안에 부처도 중생도, 또는 육의 부모의 조상도 다 같이 응하고 계산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육의 부모, 그 전의 부모도 부처님도 다 거기서 받으시고 또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것대로 또 같이 먹고, 그러면 이 뱃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은 보고 응감만 했지,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달라고 해서 이 입만 빌려 주곤 넣는 거예요. 넣을 때 여러분은 맛만 보고 진짜 먹는 건 이 속에서 다 먹거든요. 여러분은 씹어 가지고 넘어갈 때 맛만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제가꿈을 섭취를 합니다. 먹으면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안 해 주면 자기가 자꾸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작은 고기도



큰 고기의 지느러미를 다 청소해 주고 거기서 얼어먹고 있듯이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고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먹고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화풍도 열마나 고마운가. 지수화풍이 계합이 되지 않았으면 생명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공기가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도 맑다고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또 물이 없어도 우리는 죽겠지요. 그러면서도 물이 고마운 줄 모르죠. 물이 있을 때는 평평 씹니다.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맞입니다. 그래서 물도 절약할, 아주 광신적으로 절약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도껏 분수껏 쓰라는 거죠. 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흙을 밟고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흙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

는 지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 자체가 바탕이 된다면 그 바탕 속에 자기 근본이 있기 때문에 또 고마운 거죠. 자기가 자기 고마운 줄 안다면 우주 법계가 다 고맙다는 그 뜻이 전체 한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두 한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돌봐주는데 어찌 안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심성과학이예요.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몸뚱이 속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자기예요. 그 참자기가, 즉 말하자면 소리껍데기를 해 놓고 그 알맹이가 소리 속에 들어가서 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나쁘면 또 갈아서 들어가

요. 그럼 껍데기 속에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 속에 또 껍데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껍데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잘 끌고 다니죠. 아다가 바퀴지면 안 되니깐요. 부딪쳐서 바퀴지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집이 망가지면 내가 집에 들어 있을 수가 없고 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본다면, 돌아가신 분들 천도를 시킬 때에도 그렇고 제사 지낼 때도 위패를 해 놓고 하죠. 거기 안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주할 데가 없으면 지점을 못하니까, 꽃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 안주하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에 가거나 이래도 꽃을 한 송이 이렇게 가져가죠. 잠시라도,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 같이 상봉하라고 맞입니다. 그러나 혼백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계신 게 아니

고 그건 채가 없기 때문에 어디고 상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법의 부모든 육의 부모든 다 주인공에다 넣고 그냥 나를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살게 해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채가 없는 거니까 그 혼백을 내 속에다가, 다 주인공 안에다 넣어 놓으면 아,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집이 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깥으로 깎달라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잘되게 해 주기는 뭘 잘되게 해 줄까. 자기가 거기다 넣고 그렇게 주인공에 하나로 다 모아서 '다 그냥 일체다' 할 때 그 혼백도 다 자기 마음 쓰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물리가 터지고, 아, 그래야 만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보살로 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것을 모르고 이사를 가도 항상 '아이고, 이거 어느 날 이사 가야 좋을까? 올해는 또 삼재가 안 들었을까? 우리 아빠가 언짢으면 어쩌지지, 우리 자식이 언짢으면 어쩌지지. 가게를 하는데 영 안돼, 그림 뭐가 잘못되거나 없었나. 조상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없었나.' 그런단 말입니다. 조상은 왜 들먹입니까, 글썽? 아니 자식들을 길러서 그렇게 해 준 것도 고마운데 조상 탓을 왜 생각을 합니까?

물론 죽으면 냉정하고 죽으면 사정이 없습시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곤 정 반대죠.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입니까? 자식 부모라는 걸 아예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해를 입히는 걸 바로 과(果)라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오는 과, 그러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여러분이 능통하고 당당하게 사신다면 앞으로 부모도 자식도, 또는 형제도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고 걱정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걱정인 거예요. 괜히 발버둥질 친단 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집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금방 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여기에서 거기에 알맞게 응도에 맞게 나와 줍니다. 몸이 아파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금방 자기 속에서 약사가 그러고 그냥 통신을 하게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광력이라고 맞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찰나에 들어가서 찰나에 해결하고 찰나에 나죠. 이러한 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상 탓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6면으로 계속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I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 법문, 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 행사, 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세트 CD30장
-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세트 20장CD
-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로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 2.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 제작해 드립니다.
-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남,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지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